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2호 [주체 제25861호] 주체106(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인 12월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을 잃은 민족 최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불멸을 찾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 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존엄높은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6돐에 즈음하여 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에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민족의 어머니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12월의 조국강산에 총정의 대화가 되여 울음이 흐르고있다.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에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만수대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으로는 탁월한 사상과 정력

적인 령도로 우리 당과 혁명을 태몽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은 군중들의 물결이 새 차게 끓어올랐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 자애로운 아버지 여러 나라 인사들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부의 총서기 리스피안토가 11월 24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각께서는 탁월한 선군정치로 조선용 그 어떤 대적도 범접할수 없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면시키시였다.

그이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이시며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다.

오늘 조선이 당당한 핵강국으로 위용 떨치고있는 것은 김정일각각의 불변불후의 로고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각각께서는 인도네시아와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정일각각의 현명한 령도 밑에 조선인민은 가까운 앞날에 김정일각각의 유언을 관철하여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민주공화당 총비서 보스와 이세봄베델베르가 11월 27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을 이끄신 수심상상은 그대로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이다.

김정일령도자의 인력정치로 하여 조선에서는 인민의 이익이 모든 로선과 정책의 기준으로 철저히 고수되였다.

통유림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철되고 세계주의연합세력의 반사회주의공세가 조선에 정중되던 시기에도 조선에서는 무상치로제, 무로교육제와 같은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였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은 때로는 령도자를 조선인민은 자식이 어머니를 따르듯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다.

이것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단석같이 다지게 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조선중앙통신】